

원희룡 장관, “한-사우디 간 인프라투자 확대 환영”

- 11일 방한 중인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 논의 -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1일(금)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칼리드 알-팔레(Khalid A. Al-Falih)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
* 사우디 참석자 : 투자부 장관(Khalid A. Al-Falih), 주한 사우디 대사(Sami Al-Sahan), 투자자 담당차관(Badr I.ALBDR), 부동산 담당국장(Fahad Alhashem)

□ 이날 면담은 10일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최근 사우디 방문성적을 공유하고, 양국간 인프라·스마트 시티 분야 투자 확대 및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.

□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“지난 4월부터 9일까지 민간기업들과 함께 ‘원팀 코리아’로 사우디를 방문하여, 주요 발주처 및 정부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우리기업 수주기반을 강화하고, 한-사우디 ‘모빌리티 혁신 로드쇼’를 공동 개최하여 양국 기업간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였다”라고 밝혔다.

* ‘원팀 코리아’ 사우디 방문(11.4~11.9) 주요 성과

- 고위급 면담(8건, 네옴·PIF·에너지부·주택부 등)으로 우리기업 수주기반 확대, 정부간 미래모빌리티·도로협력 MOU 체결 합의(2건), 한-사우디 ‘모빌리티 혁신 로드쇼’ 공동 개최로 양국 100여개 기업 네트워크 토대 마련 등

○ 특히 원 장관은 “사우디 교통물류부와 함께 리야드에서 개최한 로드쇼에서는 한국 기업 41개사와 사우디 기업 64개사가 참여하여 인프라를 비롯하여 IT, 스마트시티,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토대를 구축하였다”고 강조하면서,

○ “이번 방문에서는 우리기업들이 가진 다양한 기술과 경쟁력을

홍보하여 양국간 신뢰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, 앞으로 한-사우디 주택협력 세미나 개최(11월말), 모빌리티 협력 MOU 체결(주요 계기시)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"이라고 설명하였다

- 이와 함께, "한국은 사우디 비전 2030 중점 협력국으로서 양국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은 사우디가 추진하는 네옴, 홍해, 키디아 등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은 물론 우리기업 참여에도 도움이 될 것"이라고 밝혔다.

□ 이에, 사우디 칼리드 알-펠레 장관은 "수교 60년을 맞은 뜻깊은 올해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어 기쁘다"고 소감을 발표하며,

- "건설 인프라 분야를 비롯하여 스마트시티·모빌리티 등 투자부문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"고 밝혔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사우디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간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, 민간차원에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병행하여 사업 수주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2022. 11. 11.

국토교통부 대변인